우암학원 창학 74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光州日報
SINCE 1952

고품격 명품아파트의 기준! 승원팰리체
FELICE
홍성2차승원팰리체.com

1952년 4월 20일 창간 제22207호 1판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음력 2월 2일 2024년 3월 11일 월요일

야 "정권심판"·여 "거야심판"… 총선 '리스크 관리'에 달렸다

〈巨野〉

4·10 총선 D-30

공천 갈등 마무리 국면
선대위 출범 본격 선거전 돌입
지지층 결집·중도층 공략 중점
비례 투표 '조국 약진' 관심

4·10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는 이번 주중 지역구 후보자 공천을 마무리하고, 불꽃 튀는 선거전에 들어간다. 여당은 '거야(巨野) 심판론'을, 야당은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며 표심 잡기에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3면〉

특히 총선을 한 달 앞으로 남겨둔 상황에서 여야 지지층이 진영을 중심으로 결집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여야는 선거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전통적인 지지층 결집과 함께 '중도 표심' 공략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선거 과정에 공천 파동에 따른 후폭풍, 후보자 막말 등이 선거 결과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등 변수가 여전한 만큼 여야 모두 향후 선거 전략과 리스크 관리에도 신경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공천 과정에서 빚어진 각종 잡음과 '친명-비명계 갈등'에 휩싸였던 더불어민주당은 공천 갈등이 수그러드는 분위기 속에 막판 총력전에 나서는 모양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공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공천 잡음이나 계파 갈등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분위기 속에 조만간 선대위 출범과 함께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운동권 세력 교체와 세대교체를 내세운 '야권 심판론'을,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의혹 등 윤 대통령 일가와 관련된 이슈를 중심으로 '정권 심판론'을 내세워 표심을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선거일을 한 달여 앞두고 범보수와 범진보 진영이 결집하는 가운데 양 진영의 팽팽한 지지율을 기반으로 선거전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결과, 국민의힘이 '공천 갈등' 탓에 지지세 추락을 보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안팎에서 앞서고 있는 만큼 향후 선거 국면에서는 범보수와 범진보 진영의 지지층 결집과 함께 중도 보수층 잡기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여야 모두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과 수도권 선거구에 당력을 집중하면서, 수도권에서 이번 총선 승기를 잡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례 투표도 관심사다. 거대 양당의 틈 바구니에서 추진됐던 '제3지대' 빅텐트가 무산된 가운데 조국혁신당의 약진이 눈에 띄기 때문이다. 공천 파동으로 민주당에 등을 돌린 지지층이 조국혁신당으로 결집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야권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고전이 예상된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더불어민주연합'을 통해 비례 46석 가운데 절반인 20석 이상을 목표로 세웠지만, 목표치를 대폭 하향 조정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과 민주당 탈당파가 모인 '새로운미래' 등이 선거 막판까지 어느 정도 지지세를 끌어올리느냐도 총선 막판 새로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불모지'였던 광주·전남지역 18개 선거구에 모든 후보를 내고 민주당 후보와의 한판 승부를 벼르는 등 호남에서의 선전을 기대하며 향후 당력을 집중할 기세다.

반면, 민주당은 '공천 갈등' 후폭풍 수습과 함께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지지율을 반전시킬 전략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천 후폭풍이 텃밭인 광주·전남까지 이어지면서 호남발 민심도 그리 녹록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민주당은 이른 선대위 출범을 통해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큰 목표로 지지율 반전을 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앞으로 선거일까지 어떤 정당이 자신들의 전통적인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중도층을 얼마만큼 흡수할 수 있느냐가 선거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면서 "특히 선거 과정에 당 지도부나 선대위 관계자, 후보자들의 막말 등이 악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 정당은 리스크 관리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광주·전남에 친일 잔재 청산은 '아직' ▶6면
후반 4골 몰아쳐 역전승…광주는 강했다 ▶18면
동네 책방 나들이 - 광주 기역책방 ▶22면

"총선 투표해용" 오는 4월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30일 앞두고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10일 청사 1층에서 투표 홍보를 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소상공인 2금융권 대출이자 환급신청

18일부터, 평균 75만원 … 40만명에 3천억원 규모

제2금융권(상호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에서 5~7%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1인당 평균 75만원 수준의 이자를 되돌려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신용정보원, 중소금융권 권역별 협회·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전산시스템을 구축, 오는 18일부터 소상공인 차주 40만명으로부터 이자 3000억원에 대한 환급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에서 작년 말 기준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대상이다.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과 금융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기관은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한 번에 환급한다. 환급되는 이자 금액은 작년 말 기준 대출잔액에 금리 구간별 환급이자율을 곱해 구한다.

환급이자율은 대출 금리 구간이 '5.0~5.5%' 구간이면 0.5%포인트(p), '5.5~6.5%' 구간은 적용금리와 5%와의 차이만큼, '6.5~7%' 구간에는 1.5%p다. 1인당 이자 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을 최대 1억원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1인당 최대 환급액은 150만원이다.

예를 들어 작년 말 대출잔액이 8천만원이고 금리가 6%인 경우, 1년치 환급 이자는 '8000만원×1%(6%-5%)=80만원'으로 산정된다.

이자환급금은 차주의 신청이 있어야 지급이 가능하며 1분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차주들은 18~25일 신청하면 26~28일 검증·확정을 거쳐 29일부터 내달 5일까지 환급을 받게 된다. 신청은 연중 내내 가능하며 돌아오는 분기 말에 환급받을 수 있다.

각 금융기관은 13일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 기간과 채널 등을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해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개인사업자는 18일부터 신용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http://cashback.credit4u.or.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법인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 등을 통해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연합뉴스

2weeks
IOPE LAB
슈퍼레티놀
단 2주 만에 주름 잡다
| 아이오페 레티놀 엑스퍼트 0.1% |
주름을 위한 당신의 노력들,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요?
이제, 주름보다 강한 슈퍼레티놀로
확실한 주름 개선 효과를 느껴보세요
레티놀은 아이오페
IOPE
고객상담실 080-023-5454 | www.iope.com